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6)**

말씀 나눔

차드의 특징 중 하나는 도로포장이 거의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료를 찾아보니 차드 전체 국토의 도로 포장률이 2% 미만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비율이 99.7%라고 하니 차드에는 포장된 도로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수준입니다. 그렇다 보니 저희가 사는 ‘암바타’에서 ‘은자메나’ 시내로 나가는 길 또한 단 하나의 도로밖에 없습니다. 물론 시내로 인도하는 포장되지 않은 다른 길도 있지만, 그런 길로 자주 다니면 자동차가 고장 날 위험이 커서 하나뿐인 포장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길이 하나라는 것은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아 보입니다. 차드에 와서 처음에는 모든 것이 신기하게 보였지만, 점차 익숙해지다 보니 많은 것들이 단조롭게 느껴집니다. 매일 보아도 크게 변하지 않는 황량한 주변 풍경이 때로는 사람을 메마르게도 합니다. 그리고 시내로 나가는 길이 단 하나이기 때문에 가끔 경찰이 도로를 통제하면 도로는 금세 주차장을 방불케 합니다. 찌는 듯한 더위 가운데 오도 가도 못하고 자동차 안에 갇혀있으면, 어느새 제 마음에는 불평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그러나 나쁜 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갈 수 있는 길이 오직 하나라는 것, 그것이 때로는 무료함을 주기도 하지만, 이 길로만 가면 목적지인 시내에 반드시 도착한다는 강한 확신을 줍니다. 아무리 차가 막히고, 가는 길이 초라해 보여도, 이 길만 따라가면 목적지에 다다르기 때문에 결코 길을 잃을 염려도 없습니다. 그것이 은자메나 시내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 주는 평안함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우리 인생의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합니다.

때로는 주님을 따르는 길이 지루하고, 답답하다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다른 길에서 있는 남보다 뒤쳐져 있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만이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제아무리 잘 닦여 보이는 화려한 길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그 길의 끝은 멸망일 뿐입니다.

영생과 멸망이라는 기로에서, 지금 여러분은 어느 길 위에 서 계십니까?

선교지 소식

전 세계가 이상기후로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비로 인한 홍수,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산불로 인해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고 목숨까지 잃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차드도 이러한 변화를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이곳은 매해 6월부터 9월까지가 한해 강수량의 대부분이 내리는 우기이지만, 올해는 이상기후로 인해 비가 많이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내리면 물론 홍수와 각종 수인성 전염병으로 피해가 발생하지만, 그렇다고 비가 오지 않으면 1년 치 농사를 망치게 되고, 더 많은 차드 사람들이 식량난으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아무리 과학과 기술이 발전한다 해도, 사람은 자연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금 발견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차드 땅에 적당한 비를 내려주시고, 더 나아가 지구촌 곳곳에서 이상기후로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위로와 평강이 임하길 두 손 모아 기도드립니다.

우리들 이야기

5월 첫째 주부터 6월 말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음악을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음악 수업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소규모로 시작했으나 매주 점점 늘어나는 인원으로 열기 가득한 수업이 되었습니다. 제 나이 스무 살 무렵 음악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 맞벌이하시는 부모님을 둔 학생들이 많았었고, 그 아이들은 제때 밥도 못 먹고 부모님이 퇴근하시는 늦은 시간까지 학원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당시 천원에 7~8개 하던 봉어빵을 사서 아이들과 나눠 먹으며 나중에 밥도 주고 음악도 가르쳐주는 어른이 되어야지! 하고 속으로 기도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기도를 했었다는 것조차 까마득히 잊고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 자그마한 교실에 스무 명 남짓 되는 학생들을 앉혀놓고 음악을 가르쳐주는 제 모습에서, 교실 한쪽에는 수업 후에 나누어 줄 바게트 빵과 주스, 과일들을 보자 잊고 있었던 예전 그 기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과 아, 주님께서 그때 나의 작은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싶은 생각에 울컥해 한동안 저 멀리 하늘을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음악수업이 턱없이 부족한 땅에서의 가르침이라 갈 길이 멀지만, 주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학생들을 최선을 다해 가르치고 먹이며 섬기려 합니다. 기억나실 때마다 함께 기도해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난 한 달 동안 한국불어권선교회 30주년 리트릿 참석차 프랑스를 방문하였습니다. 불어권 나라들의 복음화를 위해 함께 헌신하는 가족과도 같은 선교사님들을 만나 교제하며 영적으로 재충전을 받고, 그동안 지쳤던 체력을 보충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늘 신실하게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 해주시는 많은 동역자분을 만나 뵈고 큰 힘과 위로를 얻는 귀한 시간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파송 교회인 파리순복음교회를 방문하여 선교 보고를 드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영국 본머스푸른나무교회를 방문하여 선교 보고를 드리고, 목사님과 성도님들로부터 깊은 사랑과 섬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리트릿 기간에 여러 손길을 통해 받은 사랑과 은혜를 사람인 저희로서는 갚을 길이 없을 것입니다. 설사 갚으려 해도 그 갚을 매길 수조차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이런 큰 섬김을 받아도 되나'라는 질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희는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무익한 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많은 분의 손길을 통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 그 사랑의 종착역은 결코 저희가 아닌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잃어버린 양들을 섬기라는 뜻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많은 동역자분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고스란히 현지인들에게 흘려보내고, 리트릿을 통해 받은 영적인 힘을 복음 전하는 일에만 온전히 쏟을 수 있도록 다시금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이 편지를 읽으시는 모든 소중한 동역자분들의 삶 속에 임하시기를 두 손 모아 기도드리며, 진심 어린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에 빚진 선교사, 조영인 김은혜 요셉 안나 올림

기도제목

1. 차드의 모든 미전도종족들에게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도록
2.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차드 대통령에게 부어주도록
3. 차드를 비롯한 아프리카에 평화를 내려주시도록
4. 우기를 겪고 있는 차드에 적당한 비를 내려주시도록
5. 선교사 가정이 영육 간에 강건하고, 차드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